

새라 젠슨(Sarah Jensen) 영상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선더베이에서 캐슬그린 주거협동조합 이사로서 일하는 새라 젠슨입니다. 조합은 1850년 체결된 로빈슨 조약의 당사자인 포트윌리엄 원주민의 땅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캐슬그린 주거협동조합은 도시의 주거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5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캐나다는 물론 세계의 주거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협동조합 이야기는 어머니와 함께 캐슬그린으로 이사한 15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일곱 살 때부터 활기찬 커뮤니티의 적극적 구성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해안과 우리를 환영해준 마을 사람들 덕분에 저는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우리 협동조합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은 어머니와 제가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지 않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협동조합 가족의 지원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저는 협동조합에서 성장하면서 너무나 많은 기회와 지원을 누렸습니다. 열네 살 때는 '커뮤니티 가든 코디네이터'가 되어 리더십 스킬을 키웠고, 열여덟 살에는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리더십 캠프에 참석한 경험은 현재 청년참여 코디네이터로 일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키우고, 언제나 협동조합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은 인간성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안의 힘을 키움으로써 연대하고, 세상을 더욱 협동적이며 모두에게 더 좋은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어 협동조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발견하길 희망합니다.